

의료계 고부담시험을 어떻게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허 선^{1,2*}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¹기생충학교실, ²의학교육연구소

How can high stakes examination in Korean medical society be improved to the international level?

Sun Huh, MD^{1,2*}

¹Department of Parasitology, ²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Corresponding author: Sun Huh, E-mail: shuh@hallym.ac.kr

Received January 16, 2012 · Accepted January 23, 2012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의료 행위를 수행하려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또한 전문의로서 활동하려면 전문의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의료계에 중요한 시험은 이 외에도 인턴선발시험 및 전공의선발시험이 있다. 대부분의 의대 졸업생이 치르는 시험이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은 자격이나 면허, 취업에 관계되는 것으로 고부담시험(high stakes test)이라 부른다. 고부담시험은 시험 자체가 고부담이라기보다 시험 결과가 고부담이다. 예를 들어 대학 수능시험, TOEFL, 운전면허시험, 각종 면허시험 등이다. 이런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에 따라 또는 점수에 따라 수험생의 진로, 취업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즉, 고부담시험은 대개 한번에 규정에 따라 치루며 명확한 합격선이 있으며 합격 여부에 따라 이후 과정에 차이가 나는 경우 일컫는 시험이다 [1]. 이런 면에서 앞에 기술한 4 가지 시험이 의료계의 고부담 시험이다. 이외에 2001년부터 대한의학회에서 시행하는 세부전문 의사자격제도에 따른 세부전문 의사자격시험이 있다. 2010년 3월까지 인증된 세부전문 의제도는 내과계와 소아청소년과계가 각각 9개, 수부외과, 중환자치학, 외상외과 등을 포함하여 21개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다 [2]. 이번 특집에서는 우리나라 의사가 대부분 접하는 고부담시험을 다루었다. 세부전문 의사자격시험은 아직 전 전문의 분야에서 모두 시행하

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특집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보건 복지부에서는 최근 2013년부터는 인턴제를 폐지해 바로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인턴이나 전공의 선발제도에 조만간 변화가 올 것이므로 역시 이번 특집에서 제외하였다.

1952년 제1회 의사국가시험을 시행하고, 1992년도 한국 의사국가시험원이 발족한 이래 1998년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의사국가시험 문항의 질과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고 2009년에는 아시아 지역 최초로 임상실기시험을 의사국가시험에 도입하였다 [3,4]. 이에 따라 '의사국가시험에서 실기시험의 도입이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을 다루었다 [5]. 저자인 박훈기 교수는 시행 공고 전부터 이 실기시험 도입에 관여하여 핵심의 역할을 하여왔다. 실기시험 도입을 공고한 후 의과대학별로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2009년을 전후로 임상실기실습센터를 독립적으로 대부분 확보하게 되었으며 3, 4학년 과정에는 단순수기 실습 교육과정과 표준화환자 진료시험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 눈에 띄게 변화한 모습이다. 이런 교육과정의 변화가 졸업생이 임상현장에서 변화한 모습으로 반영되는 지는 아직 시행 후 짧은 기간이므로 속단하기 어렵지만 인턴 및 1년차 전공의 모두 수기실습이 의사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로서 직접 환자를 볼 때 도움이 되었고, 임상수행평가 관련 학교교육도 인턴이나 주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의사실기시험이 도입된 후에 교수 입장에서는 1년차 전공의나 수련의들이 과거에 비하여 기본 임상수기를 잘하고, 환자에게 설명을 잘 하며, 환자와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자료는 앞으로 수련과정을 더 밟을 때 또는 독립하여 진료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추적 조사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기적인 관찰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하지만, 임상실기시험 도입은 우선 의과대학 교육 및 졸업 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의사국가시험에서 또 다른 화두 하나는 컴퓨터시험(computerized testing)의 도입이다.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도입하는데 이론적 및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없다[6]. 이번 특집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컴퓨터시험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여 다루었다[7]. 컴퓨터시험에는 컴퓨터바탕시험(computer-based testing), 컴퓨터활용적응시험(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및 인터넷바탕시험(internet-based testing) 및 ubiquitous-based testing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미국에서는 컴퓨터바탕시험, 캐나다에서는 컴퓨터활용적응시험을 활용하고 있으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2011년에 이미 ubiquitous-based testing의 모의시험을 시행하였다. 어느 것을 활용하던지 이미 의사국가시험위원회에서 2018년까지는 컴퓨터시험을 적극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으므로 그 장단점과 구현 가능성을 파악하여 의사국가시험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우리나라 정부 주관 아래 1951년 제1회 전문의고시를 시행한 이후 2012년에 제55회 전문의고시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 의료 발달은 전문의 제도 도입이 매우 큰 역할을 하여 각 분과별로 빠르게 발전하여 지금은 의료 서비스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전문의 진료 서비스 역량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고, 의료 제도 및 최신 시설 및 설비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함에 전문의고시가 전문의 입문 최소 자격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이번 특집에 대한의학회에서 오랜 기간 고시

업무에 헌신한 현 고시이사 황인홍 교수의 '전문의고시의 교육측정학 과제' 기고를 수록하였다[8]. 기존의 지필고사에서 임상수행평가, 컴퓨터시험 등을 도입하고 내용 면에서 전문직업성을 강화하고, 의료인문학, 윤리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의제도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꽃으로 국가 의료 서비스 발전을 주도하는 기반이므로 앞으로 더욱더 역량을 강화한 전문의 배출을 위하여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양대 고부담시험인 의사국가시험 및 전문의고시를 다루어 앞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한 데 이번 특집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교육평가 분야도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사의 전문성 강화 면에서 의료계도 더욱더 연구하고 정부도 투자하여 국제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의과대학이나 각 전문 분과학회에서는 이런 발전 방향에 맞추어 교육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REFERENCES

1. Wikipedia. High-stakes test [Internet]. 2011 [cited 2012 Jan 15]. Available from: http://en.wikipedia.org/wiki/High_stakes_test.
2.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Sub-specialist program [Internet]. Seoul: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2010 [cited 2012 Jan 15]. Available from: <http://www.kams.or.kr/meinfo/sub1.html>.
3. Kim KS. President's address: improving the quality of testing. J Educ Eval Health Prof 2011;8:1.
4. Kim KS. Introduc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clinical skill test of the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Republic of Korea (2009). J Educ Eval Health Prof 2010;7:4.
5. Park HK. The impact of introduction of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clinical skills assessment on medical education. J Korean Med Assoc 2012;55:116-123.
6. Lee YH. Introduction to an open source internet-based testing program for medical student examinations. J Educ Eval Health Prof 2009;6:4.
7. Huh S. Can computerized tests be introduced to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J Korean Med Assoc 2012; 55:124-130.
8. Hwang I. Emerging tasks of specialty certifying examination: educational measurement considerations. J Korean Med Assoc 2012;55:131-137.